‘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파기환송

대법원, 정혜사 측 청구소송에… 원점서 재심리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수덕사에 “정혜사 소유권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되돌리는 결정이어서 추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수덕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제2부는 6월 29일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낸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원점서 다시 다루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덕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파기환송의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수덕사 측은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포살로 신행 혁신, 새 불교를” 6월 28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보현실은 재가불자들의 뜨거운 원력으로 가득 찼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개최한 첫 산하단체 포살법회에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실무자 등 30여 명이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원주 성문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계획

강원도 원주 지역 최초의 불교계 치매전담실이 개소해 눈길을 끈다.

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원장 소지)은 7월 3일 요양원 강당서 ‘치매전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은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규모(12명 정원)로 운영된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돼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자극 및 행동기능 개선에 집중한다. 지남력 · 기억회상 · 사물인지 훈련을 포함, 읽기 · 쓰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날마다 제공되며, 치매로 인해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는 어르신들에게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전담실은 일몰 시간대와 흐린 날 증가하는 행동심리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경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벽면을 우묵히 들어가게 만든 공간(alcove)을 신설해 치매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인 ‘배회’가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과거 사진 투사 · 옛 노래 들려드리기 등으로 우울감 완화 · 과거 회상 · 주의 환기 등을 치료할 예정이다. (033)745-9179

김주일 기자

불교학회지 논문 규정 통일 ‘본격화’

불교학술단체연합회 7월 3일 규정 통일안 발표

다양한 불교학계 학술지들의 논문 게재 시 맞춰야 하는 규정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한국불교학회, 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통일안 합의를 위해 학회 대표자들이 첫 회동을 가진 후 3개월여 만에 완성된 것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문작성 규정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학회지마다 규정이 달라 처음 준비하던 곳이 아닌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규정에 맞춰 고쳐 써야했기 때문이다.

통일안 마련을 위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은 종호 스님(한국불교학회),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원 · 만해학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귀 교수(한국선학회) 등을 위원으로 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4월 7일, 4월 26일, 5월 26일, 6월 2일 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매 회의마다 4~5시간의 열띤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같은 산고를 통해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주요 불교계 학회 14곳 참여

간결 · 일관 · 정확 · 국제성 ‘특징’

불교학자, 편의성 높아질 전망

“미참여 학회들 참여 독려도”

이번 통일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간결성 △일관성 △정확성 △국제성이다. 각주의 경우 간략히 작성하고 온전한 서지 정보를 기입할 것, 연도는 서기로 통일할 것을 명시했다. 참고문헌의 경우 본문 인용 문헌만 정리 · 표기하고, 1, 2차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것을 규정했다. 1, 2차 자료 표기법도 상세하게 명시해 놨다.

현재, 합의 동참한 불교학 단체는 △대각사상연구원 △대행선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만해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인도철학회 △정토학회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등 14개 단체다. 불교학연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교학 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다.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학회지마다 논문 작성 규정이 다를 경우 게재하려는 학자들은 번거로운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세계 학계도 논문 규정을 통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일안은 국내외 학계의 관례를 중시하면서 ‘간결 · 일관 · 정확 · 국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몇몇 학회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독려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고불암 감원 J스님 해임 · 산문출송

‘해인사 가풍 악영향’ 판단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최근 여종무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산내암자 고불암 감원 J스님을 산문출송했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6월 23일 관음전서 정유년 하안거 입회를 개최, J스님의 고불암 감원 해임과 산문출송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J스님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산문출송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인사 관계자는 “J스님은 여종무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승풍실추를 범하고, 해인사 가풍에 해를 끼쳤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J스님은 입회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입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해인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입었다고 판단해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J스님 해임에 따른 후임으로는 해인사 종무소 국장급 스님을 파견했다.

또한 해인사는 고불암을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직영 전환을 위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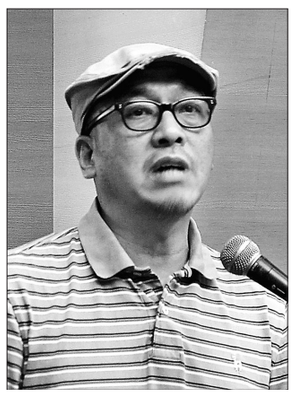
“단열로 사찰에너지 효율 극대화”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에너지 관리 어떻게’ 토론회

사찰에너지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단열’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사찰이 건축된 지 오래돼 단열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017 토론회 ‘사찰에너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함승호 적정기술공방 대표〈사진〉는 “단열을 통해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면서 사찰 단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및 사례를 제안했다.

먼저 함 대표는 100평 규모의 수녀원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제시하며 “식당과 기도시설 등 외벽들 뿐 아니라 외벽과 나란히 위치한 벽들도 전부 단열했다. 또 종교시설의 불필요한 창과 문의 크기와 개수를 최소화했다”면서 “외벽과 이어지는 벽을 간과할 경우 이 부분을 통해 냉온이 계속 열교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벽짚 등 단열소재 활용하면

사찰 단열 문제 해결에 도움

또한 상시 거주 공간은 화목 보일러로, 비상시 공간은 구들과 보일러를 복합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시공 단계부터 단열 장치를 확보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볏짚 · 갈대 등 생태 단열소재도 주목할 만한 기법으로 소개했다. 함 대표는 “갈대는 사이에 있는 기공들이 천연단열재 역할을 한다. 볏짚, 갈대 등은 환경에 전혀 주장을 주지 않는 기법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도 ‘사찰에너지 문제의 세계성과 현실성’ 주제 발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찰에서의 실천 방안은 ‘건축물의 단열’”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밖에 강해윤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찰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 방안’을,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숲가꾸기+바이오매스 활용방안-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포교원 사이버 강의 일반인에게 문 연다

디지털대학 일반 접근성 높이기로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중인 조계종 디지털대학 강의가 향후 일반인에게도 문을 열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6월 23일 디지털대학에 대한 교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교육 과정 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교국장 원묵 스님은 “신도교육 과정 등 내부적인 교육에만 치중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양한 자격 과정 개설을 통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포교원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터넷으로 불교교리를 학습해 신도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